

가격안정은 생산비가 보장되어야

날씨가 추워지면 TV 화면에는 강태공이 얼음을 깨고 낚시를 담그고 입에서 하얀 입김을 내면서 고기가 낚시코를 물기만을 기다리는 장면이 나온다.

이 추위에 강바람은 차갑고 뽀뽀 얼어붙은 강 얼음 위에 앉았으니 오죽이나 추울까 생각해본다. 따뜻한 안방에 앉았는지 왜 사서 고생이나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낚시꾼은 오랜 기다림 끝에 찌가 물속으로 들어가고 그래서 낚시대를 잡아올릴 때의 기분 때문에 고생을 즐거움으로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다행히 월척이라도 잡히게 되면 천하를 얻는 기쁨이 있기 때문에 낚시꾼은 추위에도 기다리고 있는 것이다.

양계산업을 가끔 낚시꾼에 비교해 본다. 특히 브로일러의 경우에 더욱 그러하다. 그 불황에도 참고 견디며 언젠가는 월척(尺)이 걸리겠지 하는 생각에 어려움을 참고 견딘다. 빨리 전업을 하지 왜 고생스럽게 양계를 하느냐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브로일러 산업에도 가끔은 월

척을 낚는 짜릿한 흥분이 있기 때문에 더욱 매력적이다. kg당 700원이 밀돌아도 언젠가의 월척을 기다린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즐거움을 맛보기 힘들게 되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 값이 오르면 수입해서라도 가격을 안정시킨다는 정책 때문이다.

물론 가격진폭이 큰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생산비 이하로 하락하였을 때의 대책이 없이 가격 회복의 기회가 박탈당해서는 안된다는 의미이다. 강태공도 아닌데 고기가 안 잡히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동상 걸리기 위해서 얼음판에 앉아있을 사람도 없기 때문이다. 강태공도 봄·여름·가을 경치 좋은 곳에서 낚시를 했지 얼음판 위에서 구멍을 뚫고 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양계를 취미로 별장겸 해서 경치 좋은 곳에 자리잡고 수익과는 관계없이 한다면 별문제이지만 이제는 전·기업화해서 하나의 산업으로 발전하였기 때문에 적정 이윤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계속 재생산은 불가능해서 수입량은 증가하게 되고 국내산업은 황폐화될 것이다. 면화농사, 콩, 쇠고기의 경우에 이미 경험한바와 같다.

여기에 양계산물 가격의 적성선 결정이 중요하며 생산비를 정확히 산출할 필요가 있다. 생산비 조사기관에 따라 생산비에 큰 차이가 있으면 가격 정책을 올바르게 펴나갈 수 없다. 양축가들도 이제는 올바른 생산비에 대한 개념 정립과 경영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적 수준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가고 있다.



다행히 이번호부터 시작된 정찬길교수의 축산경영에 대한 기고는 이런 뜻에서도 독자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된다.

동물약품 제조업 중소기업 고유업종 지정

지난해 12월 31일자로(대통령령 11587호) 정부는 동물약품제조업을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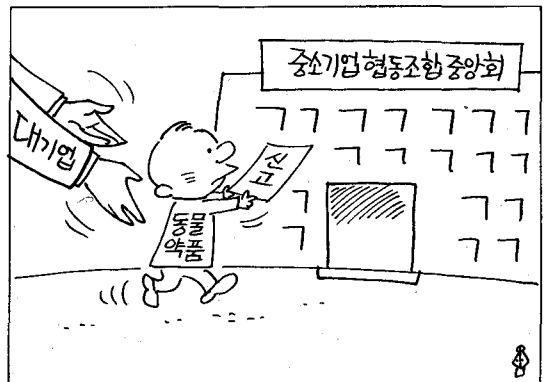
과거에도 정부의 중소기업을 중점지원 한다는 발표가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번의 경우에는 좀 다르다. 그간 대기업 중심으로 이끌어 온 우리경제의 취약성이 드러나고 중소기업 중심으로 발전한 대만의 발전에서 중소기업의 중요성이 재삼 강조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정부도 이번에만은 중소기업 고유업종으로 지정한 업체는 집중지원 육성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제 대기업이 동물약품 제조업을 하고 있는 경우에는 3월 15일까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에 신고하여야 하며, 앞으로 시설규모의 확장 등에는 제약 받게 된다.

현재 신고를 해야되는 예상 업체는 유한양행, 한국화이자, 종근당, 영진약품, 동명산업, 현대약품 등 인체약품을 함께 하는 회사들은 자본금이나 이들 회사의 종업원수 등에서 중소기업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신고 대상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한국바이엘화학(주)은 투자회사인 독일 바이엘이 중소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신고 해당업체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외 자체 공장 사용분을 위한 두산곡산, 대주산업, 제일사료 등이 있으며, 한국고킹, 대한신약 등의 경우에는 3월 15일이 지나면 윤곽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

기존 업체들은 신고 후에도 현재와 같이 영업을 계속할 수 있으며, 재벌기업이 새로 동물약품 제조업을 할 수는 없게 되는 것이다.



양계산물 절대소비량 감소

국민소득이 100\$(1인당)을 돌파한 1965년 이후 지난 20년간 양계산물의 소비는 매년 큰 폭으로 증가되어 왔었다. 이때문에 양계산업은 활력있게 발전하여 올수 있었고 양계산업의 회복에 따라 사료산업이나 동물약품업계의 호황과 불황이 직결된 때도 있었다.

73년과 81년 두차례의 석유파동때 전년 대비 약간의 소비감소가 있었지만 특수한 경우이었고 이 두해를 제외하면 지난 20년간 양계산업은 순탄한 길을 걸어왔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지난해에 모든 사람들이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결과가 나타났는데, 이는 양계산업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이 충격으로 받아들여야

할것이다.

표에서 보는바와 같이 육류의 총소비량은 증가하는데 닭고기의 총소비량은 감소하고 있어 소비자들로부터 닭고기가 외면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이유가 가격에 있든가 품질에 있든가 또는 이 두가지가 복합된 것이든가는 앞으로 심층 분석되어야 하겠지만 그간 육류 소비구조 개선을 위하여 닭고기·계란을 많이 먹자는 홍보사업도 이제는 방법을 재검토할 시점에 놓여 있다. 제1차 유류파동때에도 총육류 소비량은 1.14%가 증가하였고 쇠고기가 11.66%나 증가한데 비하여 닭고기는 4.54%, 계란은 10.38%가 감소하였었다.

그러나 2차 유류파동때에는 총육류가 9.01% 감소하는데도 닭고기는 0.24% 감소로 거의 전해의 수준을 유지할수 있었다.

이러함에도 지난해 닭고기의 감소는 돼지고기의 13.25% 증가에 비하여 보면 양계업체의 각성을 촉구하는 특별한 의미를 갖는 것이라고 보여진다. 물론 지난해 상대적으로 돼지고기 가격이 싼던 원인도 있지만 양돈산업이 브로일러 산업보다 그간 소비자를 위한 연구와 노력이 컸다는 데에도 그 원인을 찾을수 있다. 박피하여 소비자들이 원치 않는 부분을 제거하고 포장육 개발 등으로 품질을 높여왔기 때문이다.

축산물 소비량(1차 석유파동)

(M/T)

년 도	육 류 총소비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 란	우 유	1 인 당 국민소득
1972	184,725	40,229	90,230	54,266	153,450	79,852	316 \$
1973	186,846	44,919	90,126	51,801	137,527	104,082	396 \$
증감(%)	1.14	11.66	△1.1	△4.54	△10.38	30.34	25.3

축산물 소비량(2차 석유파동)

(M/T)

년 도	육류총소비량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계 란	우 유	1인당국민소득
1980	432,682	99,974	241,842	90,866	249,865	411,809	1,481
1981	393,679	93,202	209,831	90,646	243,705	557,722	1,735
증감(%)	△9.01	△6.87	△13.24	△0.24	△2.44	35.43	17.15

※ 닭고기와 계란의 소비 감소율에 비하여 쇠고기·돼지고기의 감소율이 높아 1차 석유파동때와는 정반대의 현상을 보이고 있다.

84년 소비량 비교

(M/T)

구 분	육 류 총소비량	쇠 고 기	돼지고기	닭 고 기	계 란	우 유	1 인 당 국민소득
1983	530,280	115,497	294,912	119,871	271,480	728,571	1,880
1984	계획	580,156	126,345	326,784	127,027	279,888	1,978
	실적	564,000	112,000	334,000	118,000	280,000	837,000
대비	△2.81	△11.35	2.21	△7.11	0.04	△6.56	5.21
전년대비	6.36	△ 3.03	13.25	△1.56	3.14	14.88	
85계 획	582,000	102,000	347,000	133,000	293,000	939,000	

금년부터는 양계산업도 연중 가격진폭을 줄이고 닭고기와 계란의 향상품질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더우기 문제가 되는 닭고기의 경우 3월 16일부터는 발과 머리를 자르고 포장해서 유통이 된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우선 시급히 개선해야 될 것들을 간추려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도계검사가 강화되어야 한다. 선진외국의 규정에 맞는 도계장에 대하여는 격을 붙여주어서 정부·협회에서 그 품질을 인정해주는 방법이다. 또한 공산품에서 KS마크나 열관리협

회의 '열'자, 문방구류의 '품'자 표시같은 제도 도입도 연구되어야 하며, 적어도 소비자가 믿고 살 수 있는 상표가 있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하여 가축위생연구소나 축협중앙회 등에 시험연구 전담 부서를 두어 도계장에서 수의사(검사관)가 육안으로 검사하기 어려운 것과 실험실 진단이 필요한 것에 대해 뒷받침하는 기구가 있어야 한다. 이는 연간 8~9백억이나 되는 가금질병에 의한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고 닭고기의 품질향상을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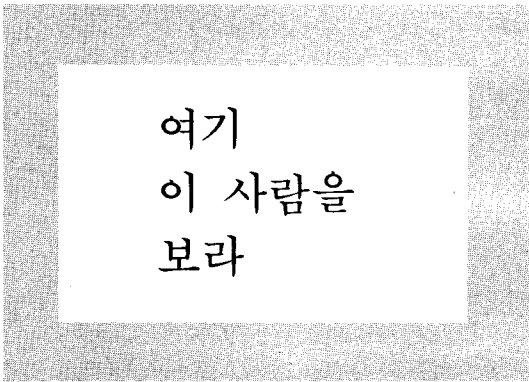
세제로 현재 도계장들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데 이를 도계수수료로 해결하려 하지 말고 사료 공장이나 대량소비처, 협동조합이 계열주체가 되어 이들과 연계시켜 경영을 안정시키는 방법이다. 그래야 도계장도 철저한 수질검사로 처리된 위생적인 물을 풍부히 사용하여 도계처리를 할 수 있고 제대로 도체를 냉각도 하고 위생적으로 운반하며 소매점에서도 위생적으로 진열·보관·판매가 가능해진다. 현재와 같이 물리적인 힘에 의하여 닭고기의 품질을 높이는 방법은 모든 방법을 사용해서 안될때 하여야 된다고 생각한다. 계란의 경우 개당 12원이나 비싸도 위생계란이 팔리고 있음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생각해볼만하다.

끝으로 양계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홍보용 카피를 공모하여야 한다. 300원짜리 치약으로 97%의 시장을 장악한 럭키의 아성에 1,500원짜리 치약으로 단번에 20%의 시



장을 석권할 수 있었던 “안티프러그 뽀드득”과 같은 소비자의 머리에 강하게 심어놓을 광고 문안을 찾아야 한다.

“위장병 잡혔어” 한마디가 국민 1인당 켈포스 두봉씩 먹도록 만든 것을 생각하면 우리도 85년에 국민 1인당 닭고기 2마리씩 더먹을수 있도록 기발한 광고문안을 만들어내야 할것이다.



월간양계는 이번호에 의정부의 한 양계장을 김재덕기자가 찾아가 관리원 한분을 만나 보았다.

물론 많은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체격이 건장하여 2~3사람 몫의 일을 하는 것도 아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기사를 참조하기로 하고, 우리가 이호근씨의 근무태도를 높이 평가하는 것은 농장의 관리인으로 흔히 볼수있는 타성이나 습관에 빠지지 않고 창의적인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는 점이다. 양계를 하는 사람이면 모두가 초생추때 사료허실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까짓것 해버리거나 또는 알고도 개선이 불가능한 어쩔수 없는 것으로 체념해버리기가 쉽다. 그러나 이호근씨는 이를 연구하고 실험해서 사료손실을 크게 줄일수 있었다.

우리는 여기에서 경영주들에게도 부탁하고 싶은 것이 있다. 종업원들의 이 작은 아이디어를 높이 사주는 아량이다. 우리나라의 많은 경영주들이 과거에는 이러한 작은 일들에 관심을 기



울이지 않았기에 종업원들도 개선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다. 사무실에서 휴지 한장을 아끼고 불필요한 전등불 한등을 끄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연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종업원이 경영주에게 그것도 큰 마음을 먹고 부동산자세로 서서 건의한다. ‘사장님 난좌를 특란용으로 개선하면 난좌가격을 상쇄하고도 파란이 덜 나와 우리 농장의 경우 같으면 하루 4개가 더 생산되는 결과가 되어 한달이면 약 6,000원 정도의 수입이 증가됩니다.’

사장은 대답한다.

‘야, 한달에 6천원, 그까짓 것이 돈여! 내가 대표한잔 안먹으면 되고 택시 한번만 안타면 되는데 귀찮게 그런것 신경쓸 필요없어. 할일 없으면 낮잠이나 자라구. 사람이 왜 이리 잘고오 종종해. 큰일 못하겠구면. 내 친구가 ○○에 있는데 한건 하면 몇억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까짓 6천원이 보이게 됐어.’

해버리면 이 농장에서는 새로운 아이디어는 나오지 못한다.

일본의 소니 회사는 이러한 작은 것들이 2만 몇천개가 모여서 생산비를 크게 절감해서 국제경쟁력을 높였다고 하며, 일본의 대부분 회사들이 이를 생활화하고 있다.

이제 한 양계장에서 시작된 작은 기술과 경영 개선 운동이 전·양계장에 확산되고 이것이 쌓여서 생산비를 절감하고 생산성을 높이게 되면 난분 수입이나 닭고기 수입도 신경쓸 필요가 없고 국가적으로도 큰 이익이 되며 소비자도 값싸게 이용할수 있게 된다.